

백진구 씨와 부인 윤선주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동명한의원을 운영하며 수입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십 수 년 동안 보시행을 해 왔지만 자식들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놀랐다고 한다. 백진구 원장과 윤선주 씨, 그리고 최근 부모님의 선행을 알게 된 장남 근혁 씨가 한 자리에 모였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만약 윤 씨의 남편 백 원장이 불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윤 씨에게 불교가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며, 윤 씨가 그런 원력을 세우고 실천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백 원장은 뒤늦게 부처님께 꼭 빠진 아내 윤 씨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람' 같은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환희' 같은 것이었다. 오랜 공부 끝에 얻는 '수확' 같은 것이며, 불법의 위대함을 '확신' 하는 일이었다. 한 번도 자신의 종교를 아내 윤 씨에게 내세우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던 백 원장이었다. 왜 그라고 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없었을까.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진정한 포교와 전법을 한 것이다.

백 원장과 부인 윤 씨는 서로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었다. '보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부와 여부를 묻고 답할 것이 없었다. 아내가 하는 일이 백 원장의 생각이고, 백 원장의 생각이 윤 씨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부인 윤 씨가 부처님 말씀을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심원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근처에 있을 수 있었던 '남편'이라는 인과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수입의 반은 항상 보시금으로

백진구 윤선주 부부는 매일 참선과 108배, 사경, 독경 등의 수행과 절에서의 수행 활동을 함께 하며, 인과법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후원할 곳을 점차 늘려갔다. 일일이 전국의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의해 명단을 정리했다. 2009년부터는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매일 1천원부터 3천원, 많게는 1만원씩 기부하는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군중특별교구, 불교신행연구원, 승가원,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하얀코끼리, 각종 복지관 등 이제는 수십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백 원장과 윤 씨 부부가 후원하는 곳은 어렵잖아 30여 곳이 넘었고, 그 금액은 하루 수입의 절반에 이른다.

"이번 생에 보시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린다면 다음 생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손자나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기복을 바라는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복 그릇은 넓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누어야 할 몫이죠. 내가 그만큼 벌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기까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인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보시 가능

"저는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터뷰할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백 원장과 윤 씨 부부의 2남 중 첫째 근혁(24) 씨의 말이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혁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 동안 보시행을 해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윤 씨는 어머니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왔다. '보시' 역시 중요한 공덕임을 평소 가르쳐 왔지만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백 원장이나 윤 씨의 '보시'가 단순한 기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자분과 인터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부모님이 해 오신 일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을까. 신기하고 놀라

웠죠. 저나 동생이 모르고 살아온 것도 그렇고, 말씀을 아끼신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 때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내 부모님이라서 오히려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내 부모님이라서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다. 백 원장과 윤 씨는 제대로 된 바라밀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 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한다. 보시를 하기는 쉬울 수 있다. 행편이 허락하고 조금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보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시를 공부의 실천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숨 없이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식도 모르게 실천하는 공덕은 분명 쉽지 않은 공덕일 것이다.

불자로서의 올바른 회향이 삶의 목표

"불자라면 무엇이든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회향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시도 물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고 가는 것이 불자로서의 회향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백 원장과 윤 씨는 함께 하루 1~2시간 참선은 일상이 된 오래다. 108배, 3000배, 독경, 사경, 염불 등 수행의 본분도 잃지 않고 불자로서 살고 있는 백 원장과 윤 씨는 불자로서 진정한 회향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회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자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 특히 윤 씨는 주위 사람들의 손을 끌고 불교대학에 가는 일에서부터,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취지와 후원의 이유를 알리는 일, 신도회 등에서 남들이 힘들어 하는 일을 마다않고 기꺼이 맡아 하는 일 등 윤 씨의 생활은 불자로서의 '회향'이었다. 윤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시는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도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마디로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글·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hyunbul.com

전법일기

추억의 20대 행자 생활

1981년 2월 사미계를 받았다. 계를 받기 전 법주사에서 행자생활을 했지만 동국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서 법주사를 나왔다. 수능시험을 본 뒤 법주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를 받아 줄 스승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지금의 모악산 금산사에서 나를 받아 주었다. 남은 행자 생활을 마친 뒤 큰스님께 법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처음부터 금산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 한 것이 아니다. 금산사에 얼마 지내지 않고 바로 동국대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학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다. 1년 이상 큰 절에서 생활을 하다 대학에 가면 사찰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동

전박대였다. 평소에도 엄격하셨던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날도 하룻밤을 못자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돈 한 푼 없이 출가한데다 별다른 지원이 없으니 나의 대학생활은 늘 궁핍했다. 간간히 염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으로 쓰곤 했다. 절에서 큰 행사나 법회를 준비 할 때 거들어 주면 몇 만원의 돈이 생겼다. 스님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의 염불은 서툴렀다. 불교의식집을 보면서 염불 속도마저 느리니까 몇몇 보살님들은 뭐 이런 스님이 있냐는 듯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큰 소리로 염불을 외우는 거였다. 다른 스님보다 오래 염불하고 가족들 이름을 크게 불



그림·박규원

국대를 선택했다. 그곳에 가니 같은 기수 입학생 스님은 나를 포함 24명이었다. 그런데 받은 40대 이상, 받은 30대이고 나와 같은 19살은 세 명이 전부였다. 기숙사 생활도 절에서의 행자 시절만큼이나 엄격했다.

"거기 1학년, 행동이 왜 이렇게 굼떠!" 선배의 불호령에 겁을 집어먹은 1학년들은 일사천리로 아침 공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발우 공양을 하는데 걸음으로 보기에 그릇이 하나지만 펼치면 네 개의 그릇으로 나뉜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면 1학년들은 제일 먼저 방석을 깔고 발우를 제 자리에 놓는다. 발우에 밥을 뜯 때도 세 번에 해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담는데 그 사람의 양을 미리 알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행자 생활의 연속이었다.

하루는 가족이 그리워 출가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았다. 가족들에게 출가 허락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다. 누나를 통해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셨고 당분간 집으로 걸음하지 말라고 전해 들었다. 다행인지 집은 이사를 가지 않아 어렵지 않게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려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탁을 치고 염불책을 보다 보니 책장을 두 장씩 넘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더욱 당황이 되어 어느 구절을 암송해야 하는지 까마득했다. 목탁을 치며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마침 노보살님께서 눈치를 채고 목청 높여 불경을 읽으셨다. 그 덕분에 실수한 순간을 모면하니 나는 얼굴이 벌개져 법당을 내려오곤 했다. 어느 때는 은사님이 계시는 절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고부신을 닦고, 아침에 세수할 물을 가져다 드리며 푹푹한 발은 용돈으로 책을 사왔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었지만 대학 생활은 즐거웠다. 어려운 공부속에서도 대학 캠퍼스의 풋풋한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궁핍한 시대였지만 민주화의 목소리가 높게 퍼져간 시대에 일반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사람들 마음에 순수성이 있던 그 시절, 가끔 인생의 불날이었던 20대가 그리웠다.



진요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운사 주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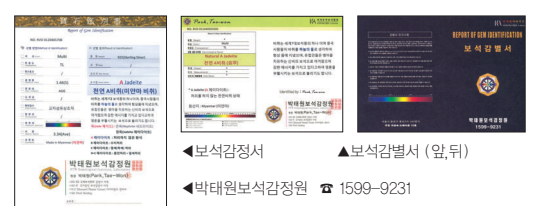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 대장균 감소율 83.6%
  - ▶ 항균성 85%
  -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능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